

어거스틴의 부활사상과 기독교윤리

유경동*

【주제어】 어거스틴, 부활, 신앙의 완전, 창조, 공공신학

【요약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부활'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된 기독교신앙의 정수로써 다양한 윤리적 관점을 형성하여 왔다. 부활은 개인에게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기 종말론적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분배하는 완전주의 윤리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이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지연으로 부활과 연관된 신학적 주제는 기독교 초기에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필자의 관점에서 크게 보면, 전천년 후천년의 구별을 통하여 지연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천년왕국설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 공인을 통한 국가와 교회의 사명을 두 도성론으로 전개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두 도성이 나뉠 것으로 기대한 어거스틴의 신학으로 연결이 된다고 본다.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필자가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어거스틴의 부활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거스틴은 비록 임박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이 모든 신앙인들의 최후의 목표이며,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윤리적 규범을 강조하였다. 둘째, 어거스틴이 다룬 부활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 규범을 형성하여 현대 기독교윤리학이 추구하는 공공 신학적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본다. 셋째, 어거스틴의 부활론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재조명하여 현대 파괴되어져 가는 생태문명에 대한 뛰어난 영적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중심으로 그의 전작을 통하여 '부활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그리스도의 부활', '심판으로서의 부활', 인간의 책임적 행위를 요청하는 '신앙의 완전으로서의 부활', 생태계를 중시하는 '창조질서로서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부활'을 강조하고자 한다.

필자가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어거스틴의 부활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거스틴은 비록 임박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이 모든 신앙인들의 최후의 목표이며,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윤리적 규범을 강조하였다. 둘째, 어거스틴이 다룬 부활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 규범을 형성하여 현대 기독교윤리학이 추구하는 공공 신학적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본다. 셋째, 어거스틴의 부활론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재조명하여 현대 파괴되어져 가는 생태문명에 대한 뛰어난 영적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중심으로 그의 전작을 통하

여 ‘부활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그리스도의 부활,’ ‘심판으로서의 부활,’ 인간의 책임적 행위를 요청하는 ‘신앙의 완전으로서의 부활,’ 생태계를 중시하는 ‘창조질서로서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부활’을 강조하고자 한다.

I. 서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부활’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하여 기독교신앙의 정수로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적 관점을 형성하여 왔다. 부활은 개인에게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기 종말론적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분배하는 완전주의 윤리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이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지연으로 부활과 연관된 신학적 주제는 기독교 초기에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필자의 관점에서 크게 보면, 전천년 후천년의 구별을 통하여 지연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천년왕국설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 공인을 통한 국가와 교회의 사명을 두 도성론으로 전개하면서 궁극적으로 두 도성이 나뉠 것으로 기대한 어거스틴의 신학으로 연결이 된다고 본다.

필자가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어거스틴의 부활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거스틴은 비록 임박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이 모든 신앙인들의 최후의 목표이며,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윤리적 규범을 강

조하였다. 둘째, 어거스틴이 다룬 부활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 규범을 형성하여 현대 기독교윤리학이 추구하는 공공 신학적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본다. 셋째, 어거스틴의 부활론은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재조명하여 현대 파괴되어져 가는 생태문명에 대한 뛰어난 영적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중심으로 그의 전작을 통하여 ‘부활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그리스도의 부활’, ‘심판으로서의 부활’, 인간의 책임적 행위를 요청하는 ‘신앙의 완전으로서의 부활’, 생태계를 중시하는 ‘창조질서로서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부활’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동안 기독교신학 분야에서 ‘부활’에 관한 주제는 성서학에서 간혹 있었지만 기독교윤리학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바라기는 어거스틴의 부활론에 대한 해석이 신앙의 완전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의무를 회복하는 신학적 단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II.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간의 부활

부활에 관한 주제에서 어거스틴이 중시하는 점은 사망의 필연과 부활의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간의 부활과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이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어거스틴의 관점을 정리하고 아울러 인간의 부활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City of God)에서 다루는 부활에 관계된 제목은 총 19개이며 그 외 다른 저서에서도 간간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¹⁾ 어거스틴은 죽음은 형벌이며 아담의 원죄에 기인한

1)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City of God)에서 소주제로 다루는 ‘부활’(resurrection)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제목은 다음과 같으며 일부 제목은 이해하기 쉽게 간략한다. ‘성인의 죽음’, ‘시편 3, 41, 15 그리고 68편에 있는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육체가 아닌 영혼의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답’, ‘모든 죽은 자들의 육체의 부활과 마지막 응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테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는 사도바울의 교훈’, ‘이사야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응보에 관한 언급에 대하여’, ‘성자들의 영원한 행복과 육체의 부활 그리고 초기 교회의 기적에 대하여’, ‘교회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육체의 부활에 대한 기독교인의 믿음에 조소를 보내는 이들에 관하여’, ‘유산의 경우에 [태아가] 죽은 자들에 포함 될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성이 부활 후 같은 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 땅에서 육체의 아름다움이 훼손된 경우 부활 후 온전하여 질 수 있는지 따라서 남아 있는 육체의 자연적 속성이 부활 후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는지의 여부’, ‘부활 후 이 땅에서 분해된 육체가 다시 연합할 수 있는지’,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완고한 이들에 관하여’, ‘플라톤(Plato)과 라베오(Labeo) 그리고 바로(Varro)조차도 만일 그들이 서로의 입장을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기만 하였어도 부활의 참 신앙에 기여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에 대하여.’ 참고) Augustine, “The City of God,” in *ST. Augustine: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ed. Philip Schaff, trans. Marcus Dods,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 2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2.pdf> [2016. 9. 24. 최종 접속]. 한편 어거스틴은 도나티스와 마니교와의 논쟁을 통하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변증하고 있다.

참고) Augustine, *The Writings Against the Manichaeans and Against the Donatists*, ed. Philip Schaff, trans. Rev. Richard Stothert et al.,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 4. (Edinburgh: T&T Clark, 1887;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4.pdf> [2016. 9. 24. 최종 접속]. 한편, 어거스틴의 ‘반 마니교 주의’와 ‘반-펠라기우스 논쟁’을 편집한 책에서는 부활에 관하여서는 다섯 개의 주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면 그것은 각각 ‘갱신의 시작과 중생이라고 불리는 부활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감추신 이유’, ‘부활 후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을 것에 대하여’, ‘세례와 죄의 면제 그리고 부활의 완전한 치료,’

다는 성경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²⁾ 그러나 부활은 궁극적으로 육체의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넘는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육체의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영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

어거스틴은 성인(聖人)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부활 후에 구원받은 이들은 영적이면서도 몸은 영의 상태가 아니라 육체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성인은 부활 후 나이가 들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육체적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영과 실제 육체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 것처럼 육체와 영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³⁾ 어거스틴은 부활을 일련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며, 영적부활에서 육체적인 부활로 나아간다고 본다. 영적 부활이란 육체의 부활을 이끌며 본래의 영적 그리고 육체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⁴⁾

어거스틴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⁵⁾ 시편 3편에서는 “내가 눕고 깨었으니 주님께서 나를 불드

‘부활에 관한 빅터(Victor)’의 몇 가지 주장에 대하여.’이다.

참고)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ed. Philip Schaff, trans. Peter Holmes, Robert E. Wallis, and Benjamin B. Warfiel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 5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5.pdf> [2016. 9. 24. 최종 접속].

2) Augustine, “The City of God,” Bk(Book).13, Ch(Chapter).23. 참고로 이하 “The City of God”의 인용출처 표기의 경우는 원문이 pdf 파일이기 때문에 본문의 책(Book)과 장(Chapter)만 표기하며 약어로 각 Bk와 Ch로 대신한다. 다른 원본의 출처의 경우 N은 number를 나타내며, Bk, Ch, N의 표기 외 아라비아 숫자는 페이지 표기임을 밝힌다.

3) 앞의 책, Bk.13, Ch.22.

4) 앞의 책, Bk.20, Ch.6.

시지 아니하겠습니까?”(시 3:5)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보고 있다. 한편, 시편 16편에서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시 16:9-10)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⁶⁾

또한 시편 41편에서는 악한 자들이 선한이의 죽음을 확신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드러난다. 악한 자들은 선한이의 죽음을 사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배신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이다. 특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시 41:9)는 가룟 유다를 연상하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시 68:20)는 내용이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보고 있다.⁷⁾

5) 앞의 책, Bk.17, Ch.18. 어거스틴은 주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구약의 시편 3, 41, 15 그리고 68편을 인용한다. 성구는 어거스틴이 본문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다. 참고로 이하 본문에 나오는 성구 인용은 한글의 ‘개역개정판’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6) 참고로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성경의 시편 중 어거스틴이 예를 든 시편 15편은 실제로 시편 16편이며 제목과 본문에서의 인용은 달리 나와 있어서 필자는 시편 16편으로 바로 잡는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영문역에서의 시편 16편 8-9절 본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혀가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육신은 안연 중에 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영혼을 지옥에 내버려두시지도 않으실 것이며 당신의 거룩한 자가 썩도록 내버려두시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 앞의 책, Bk.17, Ch.18.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간의 부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죽기 이전 상태의 몸 그대로 부활했다고 강조한다.⁸⁾ 그러나 그러한 부활은 그리스도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부활이다. 인간의 경우, 부활한 존재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정이 가능하지만, 만일 부활 이전과 부활이후 인간의 육체가 동일하다는 맥락에서 부활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부활의 의미를 협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본다. 왜냐하면 만약 인간의 경우, 부활한 육체가 죽음 이전의 육체의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부활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육체의 구성은 절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다시 죽음과 해체, 분열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한다.⁹⁾

그러나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경우와는 다른 육체의 부활이라고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을 때 육이 부활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기 때문이다. “육체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8) 앞의 책, Bk.22, Ch.15.

9) 앞의 책, Bk.22, Ch.15.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는 주의 깊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후 5:16)에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대한 표현은 인간의 육신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39)에서 육신에 관한 표현은 있으나 부활에서의 육신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고전 15:51)의 말씀처럼 죽을 몸이 홀연히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으로 보았다. 참고) Augustine, *The Writings Against the Manichaeans and Against the Donatists*, Bk.11, N.7, 180-181.

산다(What is sown a natural body [corpus animale] rises as a spiritual body [corpus spirituale])”는 말씀처럼 영으로 사는 몸은 더 이상 육체의 조건에 얽어 매이지 않고 몸이지만 영으로 사는 것이다.¹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예수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어거스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의 말씀을 이루려는 뜻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¹¹⁾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 5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이후 남은 당신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요 16:7)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뜻으로 어거스틴은 해석하고 있다.¹²⁾ 즉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부터 떠난다”는 뜻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장을 바라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해석

10) Augustine, *Handbook on Faith, Hope, and Love*, trans. Albert C. Outler (Dall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1955;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23장. 91. <http://www.ccel.org/ccel/augustine/enchiridion.pdf> [2016.9.24. 최종접속].

11)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Ch.52, 65.

12) 앞의 책, Ch.52, 65. 어거스틴은 다음의 성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요 16:8-10).

하고 있다.¹³⁾

지금까지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간의 부활을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보았다. 어거스틴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부활은 죽어서 완전히 썩은 다음 부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사된지 삼일 후에 몸이 썩지 않고 삼일 만에 부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육체의 부활은 영으로 살면서 육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 관점을 보여준다. 이제 다음에서 '심판으로서의 부활'을 통하여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III. 심판으로서의 부활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부활에 관하여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심판'이라고 본다. 여기서 심판은 영육의 부활 이후에 축복된 '생명의 부활'과 아니면 '형벌로서의 심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심판의 기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신앙을 지탱하여 주며 심판으로 나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하여 신앙은 고무된다"라고 보고 있다.¹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통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악한 일을 중지하고 부활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하고 있다.¹⁵⁾

심판이란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죽음이다. 어거스틴은 육체와 영

13) 앞의 책, Ch.52, 65.

14) Augustine, "The City of God," Bk.1, Ch.15.

15) 앞의 책, Bk.1, Ch.15.

적 죽음과 연관된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영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고 본다. 영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궁극적으로는 ‘회개’에 이르게 하며, 육체의 죽음은 “자신이 살던 이전의 삶에서 분리되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하고 있다.¹⁶⁾ 회개에 이른 영혼은 더 낫은 삶으로 다시 창조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활을 통하여 “순수하고 행복한 영혼 그리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¹⁷⁾ 그러나 저주받은 자의 부활은 죄의 비참함에 이르고 심지어 다시 살아나서도 천국에 거하지 못하고 심판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¹⁸⁾

위의 설명처럼 인간의 죽음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의 죽음은 불경건한 죄 때문이고 육의 죽음은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은 징벌 때문이다.¹⁹⁾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심으로서 인간의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고, 인간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될 때 인간의 육은 죽은 것이 된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우매하여진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생명이 없는 육적인 죽음에 필연적으로 처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²⁰⁾

그러나 중요한 점은 비록 인간의 육체는 시간 속에서 마지막 죽음에

16) 앞의 책, Bk.1, Ch.19.

17) 앞의 책, Bk.1, Ch.19.

18) 앞의 책, Bk.1, Ch.20.

19) Augustine, *On the Holy Trinity; Doctrinal Treatises; Moral Treatises*, ed. Philip Schaff, trans. Rev. Rev. Arthur W. Haddan et al.,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 3. (Edinburgh: T&T Clark, 1887;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3, N.5, 71.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3.pdf> [2016.9.24. 최종접속].

20) 앞의 책, Ch.3, N.5, 72.

이르기까지 타락하지만 영혼은 회개에 의하여 다시 소생하게 됨으로써 비록 불경건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²¹⁾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고 늘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며 마지막 부활에 새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까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²²⁾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관련하여 처음 부활과 두 번째 부활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²³⁾ 첫 번째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며 두 번째 부활은 육의 부활이다. 그리고 이 영과 육의 부활은 모두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 자들은 그것이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무지이든, 아니면 알면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의 사면은 오로지 한 분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가능하다.²⁴⁾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5장 25-29절을 인용하면서 ‘생명의 부활’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²⁵⁾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

21) 앞의 책, Ch.3, N.5, 72.

22) 어거스틴은 육체의 죽음과 영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의 말씀에서의 저주는 육체의 죽음이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영의 부활을 이루셨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는 말씀이 이를 확증한다고 보았다. Augustine, *The Writings Against the Manichaeans and Against the Donatists*, Bk.14, N.12, 211.

23) Augustine, “The City of God,” Bk.20, Ch.6.

24) 앞의 책, Bk.20, Ch.6.

25) 앞의 책, Bk.20, Ch.6. 이하 성구는 어거스틴이 인용한 것을 옮긴다.

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5-29). 어거스틴은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육체와 영혼의 부활에 있어서 우선 영혼의 부활을 지적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마 22:8)는 말씀에 근거한다. 즉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서 육체는 땅에 묻혀 있지만 영혼이 부활하였기에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어거스틴은 해석한다. 따라서 첫 번째 부활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며 두 번째 부활은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 부활하여 한 쪽은 자비의 부활로 다른 쪽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²⁶⁾

어거스틴은 또한 부활을 이 땅에서 삶과 연관이 있음을 설명한다.²⁷⁾ 어거스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계시에 대하여, 현세는 전적으로 파괴되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transmutation)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죽음은 완전히 소멸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변화에 직면해서도 인간의 속성(nature)은 사라지지 않고, 인간의 형상만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최후의 심판

26) 앞의 책, Bk.20, Ch.6.

27) 앞의 책, Bk.20, Ch.14.

과도 연결된다. 만약 인간의 본질이 죽음으로 인해 사라져 버린다면, 인간이 살아 있을 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성서의 표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²⁸⁾ 이러한 어거스틴의 해석은 심판으로서의 부활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행위와 연관된다는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필자는 어거스틴이 이해한 ‘부활’을 ‘심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는 부활을 ‘변화’(transmutation)로 정의하며 죽음으로 인간의 속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삶과 연관이 되어 육의 심판과 영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관점은 ‘책임윤리’와 연관이 됨을 알 수 있다. 육체의 심판과 영의 심판을 인간은 피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는 각각 육체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지만 이 땅에서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면 최후 심판에서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다음에서 ‘신앙의 완전’으로서의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자.

IV. 신앙의 완전으로서의 부활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에게는 네 단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각각 ‘율법 이전’, ‘율법 아래’, ‘은총 아래’ 그리고 ‘충만하고 완전한 평화’이다.²⁹⁾ 첫 번째 시기는 율법 이전이며 두 번째 시기는 모세의 시기이고, 세 번째 시기는 죄의 용서를 통한 중생의 시기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이며, 네 번째는 부활의 시기이다.³⁰⁾ 따라서

28) 앞의 책, Bk.20, Ch.14.

29) Augustine, *Handbook on Faith, Hope, and Love*, Ch.31, 118.

부활은 궁극적으로 '신앙의 완전'과 연관이 된다.

어거스틴은 부활은 영혼과는 관계가 없고 육체의 부활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부활은 외양적인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육체가 죽어서 썩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그 죄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기 때문에 부활은 영과 육체의 부활이라고 강조한다.³¹⁾ 이러한 면에서 부활은 이 땅에서의 영적 신앙생활과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

어거스틴은 죽음과 부활의 중간 시기에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머물 것이라고 보면서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행한 행위에 비례하여 참 썩을 얻든지 아니면 고통당하게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³²⁾ 그리고 부활 후에는 확실히 구별되는 두 왕국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왕국이며, 다른 하나는 마귀가 다스리는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왕국으로 어거스틴은 해석하고 있다. 이 천국에서는 행복하며 죄 지을 의지가 없는 이들이 있으며 지옥에는 죽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죄를 거부할 힘이 없는 이들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인간과 천사들이 함께 있다고 보았다.³³⁾

어거스틴은 인간의 부활은 죄로부터의 구원에서 시작된다고 보는데,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벗어나 의롭다 인정받는 자리에 나아간다.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다. 이 첫 번째 부활은 곧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가능한 것이며, 첫 번째 부활은

30) 앞의 책, Ch.31, 118, 119.

31) Augustine, "The City of God," Bk.20, Ch.10.

32) Augustine, *On the Holy Trinity; Doctrinal Treatises; Moral Treatises*, Ch.109, 272.

33) 앞의 책, Ch.111, 273.

아직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제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인간은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며, 영과 육체가 모두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³⁴⁾ 결국 죄로부터의 구원을 통하여 의로 인정받고 영육의 부활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게 되는 부활의 전 과정은 '신앙의 완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의 완전'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믿음의 행위와 연관이 된다. 어거스틴은 성지들의 영원한 행복과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부활 후 불사체로서의 영적인 몸을 가지는 상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이는 부활에 이르는 인간 존재론을 설명하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일반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할 때, 육체는 땅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영혼은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활은 육체의 부활로 연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부활한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영역에 육체가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부활이 육체와 영의 부활임을 강조한다.³⁶⁾ 어거스틴은 인간 존재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 결합을 바탕으로 인간 본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한 개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금 영혼과 육체가 결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때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의 존재는 땅에서 뿐

34) Augustine, "The City of God," Bk.20, Ch.6.

35) 앞의 책, Bk.22, Ch.4.

36) 앞의 책, Bk.22, Ch.4.

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고 이해한다.

어거스틴은 육체의 부활은 믿을 수 없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가지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있으며 그리고 학식이 없고 미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하여 믿고 있다는 것이다.³⁷⁾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본 것에 사람들에게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신앙의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박해를 겪으면서도 그 신앙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육체의 부활을 통해 영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간에게 허락되며, 나아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의 단서가 된다.³⁸⁾ 어거스틴은 결국 부활은 단순히 죽은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본래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³⁹⁾

37) 앞의 책, Bk.22, Ch.5.

38) 앞의 책 Bk.22, Ch.7. 또한 Bk.22, Ch.9. 참고. 어거스틴은 “만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의 부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한 그러한 부활이, 그리스도와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까지 성취될 수 있게 되지 않았다더라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순교자들 또한 부활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신앙의 완전’은 영적인 완전³⁹⁾에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육체가 전적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도구가 되어야 한다. 어거스틴은 이 땅에서 인간의 외향적인 육체의 미가 손상된 경우 부활 후에 온전하여 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어거스틴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눅 12:7)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눅 21:18)의 말씀은 부활 후 있는 그대로 보존된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너무 뚱뚱한 이들이나 마른 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활 후 아름다운 형상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⁴⁰⁾ 그런데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은 순교자들은 부활 후에도 그들의 영광스러운 상처가 그대로 부활의 몸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체의 추함이 아니라 영광이며 그들의 외모를 빛나게 하여 육체적 아름다움이 아닌 영적 아름다움을 덧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⁴¹⁾

지금까지 필자는 육체와 영의 부활을 강조하는 어거스틴의 관점을 소개하였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성자들의 경우, 영광스러운 상처가 부활의 몸에 남게 된다는 어거스틴의 해석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부활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여 준다고 본다. 부활이 육을 배제한 순수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 육과 영의 결합이기에 이 땅에

39) 앞의 책, Bk.22, Ch.9.

40) 앞의 책, Bk.22, Ch.19.

41) 앞의 책, Bk.22, Ch.19. 어거스틴은 부활 시에 여성은 성교를 통한 아이를 임신하는 몸이 아닌 새로운 아름다움을 덧입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온화함의 성품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았다.

서 육체로 살아갈 때의 신앙적 행위는 간과될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어거스틴의 해석은 이 땅의 창조세계에 대한 또 다른 윤리적 관점을 제공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생태계를 중시하는 ‘창조질서로서의 부활’이다. 그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V. 창조질서로서의 부활

필자가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어거스틴이 강조한 창조질서로서의 부활에 관한 부분이다. 어거스틴은 당시 육체의 부활을 의식하고 영적 부활만을 강조하는 사조에 반대하여 육체는 부활이후에 비록 변형되지만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어거스틴의 신앙은 부활의 재료가 결국은 찢어질 인간의 육체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나아가 육체가 찢어져서 흙으로 변형될 때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구 또한 부활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비록 어거스틴이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부활을 논하지는 않았지만 생태계의 보존과 연관되는 창조신학의 원리를 제시하여 준다고 본다. 부활 시에 육체의 변형과 그 변형의 소재가 되는 육체에 대한 어거스틴의 설명을 살펴보자.

어거스틴은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특히 태아가 유산된 경우 부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눅 21:18)라는 말씀을 통하여 유산된 아이나 태어난 아이 그리고 성인의 경우, 부활은 이 땅에 있었던 신체 크기에 따라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엡 4:13)에 이르는 것이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롬 8:29)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⁴²⁾

그렇다면 부활하기 전 존재와 부활한 후의 인간 존재가 과연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어거스틴은 이미 부활의 의미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앞에서 변화(transmut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일단 인간이 죽으면 그 육체는 부패와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되며, 일부는 먼지로, 일부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무기물로 분열된다.⁴³⁾ 따라서 일부 기독교의 부활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후에 해체된 육체의 구성요소들이 다시 모여져서 본래의 육체를 재구성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⁴⁴⁾ 그러나 어거스틴은 부활의 순간 이 땅에 속하였던 육체가 그 어떤 형태로 분해되었는지, 즉, 그것이 증발되거나 바람에 날려갔는지, 동물이나 인간에 의하여 식용이 되었는지, 심지어 다른 육체의 영양소로 완전 분해가 되었는지 상관없이 부활 시에는 즉각적으로 육체를 구성하게 한 본래의 영혼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영적인 몸은 영이 아니라 육체적인 몸의 상태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⁴⁵⁾ 극단적인 배고픔에 의하여 사람의 육신

42) 앞의 책, Bk.22, Ch.12. 어거스틴은 다른 책에서 당시 산부인과적 수술시, 자궁에서 죽은 태아의 경우 산모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아를 잘라서 자궁 안에서 적출하여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예를 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태아도 죽은 경우이기 때문에 부활에 이른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생명의 시작은 임신한 경우로 그는 생각하였다고 필자는 본다. 참고) Augustine, *On the Holy Trinity; Doctrinal Treatises; Moral Treatises*, Ch.86, 265.

43) 어거스틴은 같은 장에서 짐승에 의하여 먹혔거나, 화재로 죽은 경우, 파선으로 또는 물에 빠져 죽은 경우 등 다양한 예를 들면서 이 경우에도 죽은 자의 부활은 온전한 몸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부활한 몸에 상처가 그대로 남은 것은 부활에 있어서 예외적이라고 보고 있다.

44) Augustine, "The City of God," Bk.22, Ch.12.

45) Augustine, *Handbook on Faith, Hope, and Love*, Ch.23, 88.

을 먹은 경우 그 소화된 성분이 다시 부활 시에 연합될 수 있는지 어려운 사례를 들면서 어거스틴은 그 성분이 설령 기체로 증발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소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⁴⁶⁾

심지어는 완전히 소멸되어 육체가 이 자연 속에 그 어떤 부분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창조주는 다시 연합시킬 수 있다고 어거스틴은 주장한다.⁴⁷⁾ 어거스틴은 심지어 유산된 아이의 경우라 할지라도 배속 또는 밖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진리의 말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⁴⁸⁾ 아울러 어려서 죽은 경우, 어린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성인의 형상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활 후에 입을 새 몸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무로부터 모든 것들 지으신 분이 온전한 몸을 만드실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어거스틴은 보고 있다.⁴⁹⁾

어거스틴은 부활 시에 여성들이 같은 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성의 기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4:13)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에 대하여 설명한다.⁵⁰⁾ 어거스틴은 부활 시 남 여 각각 자기의 성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대하여 부활 시에 모두 한 성을 가진다는 논리는 남성은 흙으로 그리고 여성은 아담의 뼈를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이 없는 한 인간으로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어

46) 앞의 책, Bk.22, Ch.20.

47) 앞의 책, Bk.22, Ch.20.

48) Augustine, “The City of God,” Bk.22, Ch.13.

49) 앞의 책, Bk.22, Ch.14.

50) 앞의 책, Bk.22, Ch.17.

거스틴은 이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어거스틴은 창세기의 창조를 소개하면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부활 후에는 인간의 욕정과 같은 것이 없으며,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⁵¹⁾

어거스틴은 이 땅에서 순교한 성자들의 몸이 변화될 ‘영적 몸’에 대하여 설명한다.⁵²⁾ 이 영적 몸은 썩지 않고 불사의 몸이 된다. “육체가 심각한 사고나, 적의 잔인함에 의하여[훼손되고], 바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흩어지고, 또는 물속으로 흩어지고, 심지어 남은 흔적이 없어도, 창조주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다시 연합하여 영적인 몸이 된다].”⁵³⁾ 이때 육체는 영적으로 되는데 영이 육체에 복종하여 육으로 살았을 때 육체가 아니라 영이었던 것처럼 [부활한] 육체는 영에 복종하지만 영이 아니라 육체이다.”⁵⁴⁾ 비록 육의 몸이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비록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시26:8)를 인용하면서 그 행복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⁵⁵⁾

51) 앞의 책, Bk.22, Ch.17.

52) 앞의 책, Bk.22, Ch.21. 한편 어거스틴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부활을 언급하면서 그들도 함께 부활할 때 그들의 몸이 질병이나 불구의 상태로 되어 있던 경우 온전한 영적 몸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타락한 상태에서 고통의 저주를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간략하고 있다. 참고) Augustine, *On the Holy Trinity; Doctrinal Treatises; Moral Treatises*, Ch.92, 266.

53) 앞의 책, Bk.22, Ch.21.

54) 앞의 책, Bk.22, Ch.21.

55) 앞의 책, Bk.22, Ch.21. 한편 어거스틴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부활을 언급하면서 그들도 함께 부활할 때 그들의 몸이 질병이나 불구의 상태로

지금까지 필자는 창조질서의 관점에서 어거스틴의 부활론을 살펴 보았다. 특히 인간이 부활하는 경우 그 재료가 결국 죽음 후에 육체가 썩어진 흙이기에 우리가 사는 생태계는 인간 부활의 소재가 된다. 따라서 부활논의에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사 65:17; 사 66:22; 뱀후 3:13; 계 21:1)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가 없어진 전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은 아니라는 입장에 서게 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성서비평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필자는 최소한 어거스틴의 부활론을 통하여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 몸을 입을 신앙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그 몸이 이 땅의 재료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다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자.

VI.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부활

필자가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공동체를 강조한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약속이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갱신과 새로운 창조를 약속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째 승천하신 후 성경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필자 주, 눅 12:12; 요

되어 있던 경우 온전한 영적 몸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타락한 상태에서 고통의 저주를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간략하고 있다. 참고) Augustine, *On the Holy Trinity; Doctrinal Treatises; Moral Treatises*, Ch.92, 266.

14:26; 15:26; 16:13; 20:22). 이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성취에 있다고 어거스틴은 해석하고 있는데, 이 점은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참고 마 22:34-40; 막 12:28-34; 눅 10:25-28).⁵⁶⁾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계실 때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은 신 이유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7:39) 어거스틴은 부활 이후 예수가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받으라”(요 20:22)라고 말씀하셨다고 본다. 그리고 승천 후 10일 쯤 성령을 주셨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7의 완전수와 삼위일체의 3의 수를 더한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하고 있다.⁵⁷⁾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양으로써 오십 일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고 이해하고 있다.⁵⁸⁾ 이러한 해석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Kingdom of Heaven)’을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⁵⁹⁾

56) Augustine, *The Writings Against the Manichaeans and Against the Donatists*, 339. 어거스틴은 ‘성령의 손가락’의 각주로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부분은 본문의 오역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참고로 본문은 다음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눅 11:8).

57) Augustine, *The Writings Against the Manichaeans and Against the Donatists*, 222.

58) Augustine, *On the Holy Trinity; Doctrinal Treatises; Moral Treatises*, Ch.23, N.41, 308.

59) Augustine, *The Writings Against the Manichaeans and Against the Donatists*, 252. 참고로 어거스틴은 구약에서 야곱의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의 경우, 라헬은 영원한 자유를 상징하는 부활과 연관이 되며, 레아는 고통을 의미하는 육으로서 유한한 인간의 상징인 안력이 부족하고 모호한 인간성을 대변한다고 보았다. 같은 책,

어거스틴에 따르면 부활의 결과는 갱신이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엡 5:27)라는 말씀처럼 어거스틴은 예수의 부활은 교회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⁶¹⁾ 따라서 교회는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악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골 3:4)의 말씀처럼 교회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⁶²⁾ 비록 교회는 영광스럽지 않을 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엡 5:26)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와 그의 백성들의 중재자이시며 그의 백성들과 교회는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어거스틴은 이해하였다.⁶³⁾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육체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처럼 마지막 부활에 교회 또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부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⁶⁴⁾ 결국 부활은 모두에게 구원이 되는 표징이 되는 것이

292.

60)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Ch.15, N.35, 173.

61) 앞의 책, Ch.15, N.35, 173.

62) 앞의 책, Ch.15, N.35, 173.

63) 앞의 책, Ch.15, N.35, 173.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눅 13:31). 이 완전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뿐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며 부활 공동체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4) Augustine, *The Writings Against the Manichaeans and Against the Donatists*, 231.

다. 어거스틴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롬4:9)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신앙에 대하여 강조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어거스틴에게 부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며 교회는 용서와 사랑 갱신과 새창조를 통하여 부활을 전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게 된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이다.

VII. 결론: 부활의 실재와 기독교윤리

필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성’을 중심으로 어거스틴의 전작에 나타나는 부활론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어거스틴의 부활론을 통하여 도출한 윤리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필자는 어거스틴이 부활을 ‘실재론’의 맥락에서 전개하였다고 이해한다.⁶⁵⁾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 장사된 것 그리고 3일째 부활하신 내용은 신앙의 신비적 내용이 아니라 실재로서 크리스천이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모델이라고 보고 있다.⁶⁶⁾

65) 참고로 어거스틴은 바울서신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사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재, 죄의 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재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 의라고 해석하고 있다. Augustine, *On the Holy Trinity; Doctrinal Treatises; Moral Treatises*, Ch.52, 254.

66) Augustine, *On the Holy Trinity; Doctrinal Treatises; Moral Treatises*, Ch.53, 254-256. 어거스틴이 신앙의 모델을 언급하면서 인용한 성구는 아래와 같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육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자칫 부활이 상징이나 신화 또는 신비의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부활을 구체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부활신학은 그리스천이 이 땅에서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야 하며 영적 구원을 받아서 영의 부활을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시 육의 부활로 새몸을 입어야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보여주신 완전케 이르는 과정이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천은 철저하게 부활을 준비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죽은 자의 부활은 소망이 아니라 영적인 목표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된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부활론은 ‘실재론’의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의 실재를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창조의 실재’와 ‘성육신의 실재’ 그리고 ‘영생의 실재’이다. 부활은 하나님 창조에 대한 전제가 없이는 구성되지 아니하며, 삼위일체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아울러 부활을 통하여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둘째, 어거스틴의 부활론은 ‘목적론적 윤리’를 분명하게 한다. 그의 부활론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책임과 연관이 되는 윤리적 원형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1)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 6:4).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 6:5).

든 크리스천에게 징표가 된다는 어거스틴의 통찰력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윤리와 부활의 윤리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성자들이 부활이후에도 지니고 있는 이 땅에서의 육체적 고난의 흔적은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된다. 부활의 목적론적인 윤리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부활론은 인간 개개의 존재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내에 영원히 실재하는 개별적 존재로서 그러나 피조세계의 일원으로써 끝까지 존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록 육체의 부활과 영적인 부활을 통한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심판이 징벌로서가 아닌 사랑으로서 여전히 성령의 은총이 인간과 함께 있다는 부활의 삼위일체적 구조는 매우 소중하다. 인간이 부활하여 개체적 실재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관조하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은총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창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인간은 한 번 창조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게 되는 존재로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어거스틴의 부활론은 죽음 이전의 육신의 속성인 이 땅에서의 경험, 기억 그리고 감정 등이 어떻게 죽음 이후에도 유지되고, 그것이 부활의 실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신학적 통찰력을 제시한다고 본다. 어거스틴의 고전 신학적 관점은 특히 이 땅의 제한된 육체적 실존의 경험이 영적 실재와 무관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경험하는 참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을 통한 공동체로서의 연대는 부활 후에도 그러한 감성과 기억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론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인간의 인식은 뇌의 기계적 작동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뇌 결정론이나 죽음이 끝이라고 보는 무

신론적 도전을 극복하는 신학적 통찰력을 얻게 된다.

셋째, 어거스틴의 부활론은 인간이 새 몸을 입을 부활의 소재가 흠임을 기억할 때 생태계와 연관된 '창조신학'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통찰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부활 후 새 몸의 소재가 흠이라면 결국 "이 땅이 없이는 부활의 구성 재료가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부활론은 생태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윤리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는 부활이 이 땅의 소재와 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부활이전에 자신의 몸과 몸이 속한 흠에 대한 책임윤리와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부활할 몸의 소재는 따라서 자연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동족상잔과 테러, 기후 온난화와 생태파괴, 핵전쟁 등으로 황폐화되어가는 지구 땅덩어리가 부활의 재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자연의 생태적 환경에 감사하며 독점이 아닌 나눔, 개발이 아닌 보존, 고갈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자연적 흠으로서의 부활의 재료가 될 것인지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ugustine, Aurelius. "The City of God." in *ST. Augustine's: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Edited by Philip Schaff. Translated by Marcuc Dods.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 2, 7-1151. New York: The Christian Library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2.pdf> [2016. 9. 24 최종 접속].
- _____. *On the Holy Trinity; Doctrinal Treatises; Moral Treatises*. Edited by Philip Schaff. Translated by Rev. Rev. Arthur W. Haddan et al.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 3. Edinburgh: T&T Clark, 1887;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3.pdf> [2016.9.24. 최종 접속].
- _____. *The Writings Against the Manichaeans and Against the Donatists*. Edited by Philip Schaff. Translated by Rev. Richard Stothert et al.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 4. Edinburgh: T&T Clark, 1887;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4.pdf> [2016.9.24. 최종 접속].
- _____. *Anti-Pelagian Writings*, Edited by Philip Schaff. Translated by Peter Holmes, Robert E. Wallis, and Benjamin B. Warfiel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 5 New York: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5.pdf> [2016. 9. 24. 최종접속].
- _____. *Handbook on Faith, Hope, and Love*. Translated by Albert C. Outler. Dall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1955;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augustine/enchiridion.pdf> [2016. 9. 24. 최종접속].

Abstract

**Augustinian Thoughts on Resurrection and
Christian Ethics**

Kyoung-Dong Yoo, Ph.D.

Department of Ethics and Societ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In the history of the Christianity, the theme of ‘resurrection,’ due to its connection to the death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that is, the revelation of God the Trinity, is understood as the core element of Christian faith. Various ethical viewpoints have been formed regarding the resurrection. To an individual, resurrection is the end-goal of faith but it also carries communal characteristics since it’s related to the advent of the ‘Kingdom of God.’

The author became interested on the theory resurrection by Augustine from the Christian ethics’ standpoin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although Augustine didn’t possess imminent eschatological viewpoint, he ultimately viewed resurrection as the end-goal of all believers forming ethical principles allowing one to live a life that befits resurrection. Secondly, various themes covered by Augustine which are related to resurrection are not limited to personal dimensions but extends to form

communal principles, providing public theological motif which the modern christian ethics seeks. Thirdly, the theory of revival by Augustine progresses to re-illuminate the God's created universe and presents outstanding spiritual insight on the ecological civilization that is being destroyed nowadays. Therefore the author will emphasize, through the works of Augustine with 'The City of God' at the cen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s the model of resurrection,' 'resurrection towards the judgement,' 'resurrection as the completion of the faith,' that demands human's responsible actions, 'the resurrection towards the order of creation,' that values ecosystems, and 'the sign of the Kingdom of God.'

【Key Words】

Augustine, Resurrection, Creation, Christian Perfection, Ethics for Community